경제의 틀을 바꾸면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4월 2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27.(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4. 26. (화)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박재영 과장 (044-203-5320)	담 당 자	김형석 사무관(044-203-5322)

한수원 경주시대 본격 개막

- 주형환 장관 한수원 본사이전 기념행사 참석 및 월성원전 안전점검 실시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 4. 27.(수) 경주시민, 한수원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 이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 기념행사 행사개요 및 주요 참석자 명단: 붙임 1, 2

□ 한수원 본사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로 이전했다.

○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정부는 55개 일반지원사업과 한수원 이전을 포함한 4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8년 본사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고 2013년 본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 본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 주형환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시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폐장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또한 한수원이 경주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감사의 말씀: 붙임 3

□ 기념행사에 앞서 주형환 장관은 월성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일본 지진관련 특별점검 결과와 노후설비 점검 및 선제적 교체 현황,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전대비태세 현황을 청취하고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월성 원전 안전점검 개요: 붙임 4

□ 주형환 장관은 최근 일본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원전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의식과 준비태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발전소현장에서 수행하는 설비관리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노후설비 점검과 선제적 교체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진단해 볼 것을 지시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김형석 사무관(☎ 044-203-5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수원 본사이전 기념행사 행사개요

1 식전 행사

□ 시간/장소 : 14:00~14:40 (40′) / 한수원 청사 내외

□ 참석: 산업통상부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

□ 세부 일정

진행시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주요 내빈 영접(1층 대기실)	
14:10~14:15	5′	○ 기념석 제막	
14:15~14:17	2′	○ 기념식수	
14:17~14:20	3′	○ 테이프 커팅	주요 내빈
14:20~14:30	10′	○ 홍보전시관 순시	
14:30~14:39	9′	○ 원전종합상황실 순시	
14:39~14:40	1′	○ 이동(→강당)	
14:00~14:40	40′	○ 식전공연 관람(오케스트라)	일반참석자

2 본 행사

□ 시간/장소 : 14:40~15:20(40′) / 한수원 강당

□ 참석: 약 800여명 (주요 내빈, 주민, 한수원 임직원 등)

□ 세부 일정

진행시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40~14:43	3′	○ 주빈 입장 및 개식선언	
14:43~14:47	4′	○ 국민의례(애국가제창, 묵념)	
14:47~14:49	2′	○ 내빈소개	
14:49~14:50	1′	○ 경과보고(영상물)	
14:50~14:54	4′	○ 기념사(사장)	
14:54~14:58	4′	○ 치 사(장관님)	사회자 진행
14:58~15:02	4′	○ 환영사(도지사)	
15:02~15:06	4′	○ 환영사(경주시장)	
15:06~15:10	4′	○ 환영사(국회의원 당선인)	
15:10~15:19	9′	○ 경주시대 발전영상/퍼포먼스	
15:19~15:20	1′	○ 폐식 및 퇴장(폐식선언, 주빈퇴장)	

붙임2 주요 내빈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주형환 (61.3.8)	▫(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 석 (57.9.27)	▫(現)한국수력원자력 사장 ▫(前)지식경제부 차관	
	김관용 (42.11.29)	▫(現) 경상북도 도지사 ▫(現) 캄보디아 훈센 총리 문화 분야 정책고문	
	김석기 (54.8.6)	▫(現)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前) 한국공항공사사장	
	최양식 (52.4.7)	▫(現) 경주시장 ▫(前) 제8대 경주대학교 총장 ▫(前) 제8대 행정자치부 제1차관	
	권영길 (48.7.6)	▫(現) 제7대 경주시의회 의장 ▫(前) 시의회 5~6대 의원 ▫(前) 경주시청 재안안전과장	
	이종인 (52.8.11)	▫(現)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석전문위원	
	류승규 (46.1.19)	▫(現) 한수원 이사회 의장 ▫(前) 제13,14대 태백시 국회의원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병기 (63.8.29)	▫(現) 한수원 제7대 중앙노조위원장 ▫(前) 한수원 노조 초대위원장	
	이병화 (54.8.27)	▫(現) 두산건설 최고경영자 ▫(前) 두선건설 건축담당 본부장, 부사장, 상무	

붙임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치사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0%를 차지하는 대표적 전력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본사이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한수원 관계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방폐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경주시민들의 결단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정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경주지역에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는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천억원 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오늘 한수원 본사 이전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민족중흥의 횃불"이라는 휘호를 써 주신 바 있습니다.

그 횃불을 안전하게 잘 써왔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횃불이 "지역발전의 횃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주에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 원자력환경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자리 잡게 되면 경주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한수원은 세계적으로 발전규모 면에서 3위, 원전 안전성 면에서 2위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의장국을 맡고 있고 내년에는 총회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경주가 천년고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 원전 발전규모: 1위 佛 EDF 2위 露 ROSATOM 3위 한수원
* 원전안전성(WANO 안전성능 종합지수): 1위 美 Exelon 95.1 2위 韓 한수원 90.1
  3위 露 REA 83.2

한수원이 마련한 "New & Clear 에너지실크로드"에 담긴 비전과 과제들이 순조롭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경주의 발전이 한수원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경주의 발전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수원도 경주 이전을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전 소재 지역에 한수원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하나가 될 때 원전의 기반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작년 12월 新기후체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감축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부존자원을 거의 갖지 못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풍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두뇌와 창의력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전이 新기후체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전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이 건설되고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 원전비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했고 정부는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추진하여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원전감독법을 시행하여 정책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의 건설과 운영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위치한 지역과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는 2천여년전 여섯 촌장이 화백회의를 열어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光明理世)라는 큰 뜻을 밝히고 신라를 건국한 곳입니다. 한수원 임직원 여러분이 근무할 건물의 이름을 광명이세관(光明理世館)으로 정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광명이세의 뜻을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수원과 경주가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월성 원전 안전점검 개요**

1 세부 계획

□ 시간 : 11:00 ~ 12:00 (60')

시 간		내 용	비고
11:00~11:20	20'	▪ 안전대비태세 브리핑(월성본부장)	당부말씀 공개
11:20~11:50	30'	▪ 발전소 시찰(월성3호기) - 중앙제어실(10') → 습식저장시설 시찰(20')	
11:50~12:20	30'	▪ 건식저장시설 시찰 - 홍보시설(10') → 건식저장시설 시찰(20')	

2 장관님 발언 요지

□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는 한수원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

○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을 믿고 안심할 수 있음

□ 원전은 국내 전력공급의 30%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함

○ 특히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

○ 일본에서 연달아 강진이 일어나는데서 보듯이 예상을 뛰어넘는 재해와 재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의식과 준비태세를 기본적인 것부터 다잡아야 할 것임

□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설비관리가 안전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노후설비 점검과 선제적 교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또한 최근 한빛1호기 고장정지 원인이었던 복수기 이음관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설비를 추가 발굴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복수기(復水器) : 터빈을 구동시킨 증기를 다시 액체로 응축시키는 냉각장치로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 진공상태를 유지해야 함

○ 해수 취수펌프, 송전용 변압기와 같이 방사능 유출과 관계없는 원전의 비핵심설비도 고장발생시 국민들의 원전 인식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안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는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사고(Groupthink)임

○ 원전과 같은 전문가 집단은 자칫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사고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내부에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중요함

□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원전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함

○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다 놓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 장비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음

○ 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자신의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